

卷頭辭

大抵 人類와 萬物은 모두 根源이 있다 그러므로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그 生成由來를 追求 考察하여 그를 土臺로 보나 나는 앞날을 開拓코자 함은 人間共通의 精神的인 欲求라 하겠다 그리하여 記錄으로 남기게 된 것이 크게는 한 나라의 國史요 적게는 一家門의 族譜란 名目の 家史다 때문에 國史 없는 나라와 家史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없다 國史가 있으므로 해서 先人 들의 精神的인 遺産과 文化的인 所産이 保全됨과 同時에 한 民族으로서의 열이 永久不滅할 것이요 家史가 있으므로 해서 祖先을 追慕하는 人倫道德의 바탕아래 一門中の 血統이 子子 孫孫繼承된 것이다 그러나 時代의 變遷과 加速된 物質文明의 高潮로 말미암아 民族的인 歷史意識 乃至 氏族的인 血統觀念에서 벗어나 차츰 忘本敗倫의 길로 치닫지나 않을까 慨嘆되는 바 이에 先人들의 뜻을 받들어 等閑속에 묻혀가는 族譜를 살려 沈滯一路에 있는 敬祖思想을 일깨우고 孝悌之心을 培養하고 敦宗睦親의 良識을 鼓吹하여 나아가서는 國家社會의 美風良俗의 仰揚에 一助가 되기를 祈願하면서 譜事를 서두르는 바이다

回顧하건대 우리 廣李의 修譜事는 東臬相公이 著述한 廣陵世譜 壬辰兵火로 燒失됨을 爲始 하여 己未譜(西紀一九一九年)까지의 大同譜가 六回이고 우리 左議政公派의 己亥派譜와 于今의 派譜事를 합쳐 凡 八回다

이렇듯 祖先들께서 남기신 譜書를 奉讀하노라면 遁村先祖의 高標峻節과 忠僖公의 沈毅大畧과 左相公의 出入將相에 克文克武며 漢陰相公의 矯矯祥鳳之姿와 安民濟世之畧等 繼繼承承한

廣州李氏左議政公派譜

祖上들의 偉蹟垂訓을 一目瞭然하게 볼수 있어 敬祖先의 情이 不識間에 油然而 蘇生하고 또 宗支의 區分과 昭穆의 次序等 根幹과 枝葉의 脈絡이 燦然備具하여 敦族之誼가 샘처럼 솟아나니 族譜의 고마움을 새삼 感銘하겠으며、餘慶을 누리는 子孫으로서 이보다 더한 矜持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싶다

三十年을 一期로 하여 譜書를 修刊하는 것이 通俗的인 譜規로 되어왔으나 生活手段의 廣域化와 離故鄉의 風潮가 盛行되어 四方으로 流離함으로써 先塋엔 雜草만 우거지고 至親마저도 顔面이 生疎하여지니 하물며 遠族이야 路人視하기가 일쑤이고 보면 오히려 晚時之感이 없지 않을까 한다

今者 修譜에 있어 至痛하게도 南北의 分斷과 諸般事情으로 大同譜가 되지 못함을 遺憾으로 여기오나 願컨대 各派間에 派譜라도 修刊하여 後日에 對備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하다 修譜의 大義는 敬祖收族하는데 있다 바라건대 僉宗은 世德을 追慕하고 族誼를 살리고 一舉手一投足에 自我를 省察하여 赫赫한 祖上에 對한 罪人이 되지말아 주기를 바라면서 今般修譜에 物心兩面으로 勞苦하신 收單有司 여러 분과 誠心것 責任을 다하여 有終에 美를 거두게한 任員諸位와 그리고 本譜印刷을 맡아 利害를 超越하여 盡力하여 주신 回想社 朴社長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辛酉西紀一九八一年十二月

廣州李氏左議政公派 宗會長 時佑 謹識

辛酉派譜重刊序(譯文)

대저 人生이란 祖上을 根源으로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代가 멀어져서 잊어 버리기도 하고 派가 나뉘어져서 疎忽해지기도 하여 行人끼리 서로 보는 것과 같아 지기가 쉽다.

그러함으로 譜法이 생겨 祖上을 위하고 宗族을 收合하는 길이 이루어졌다.

族이라 하는 것은 뿌리를 같이 하고 나누어진 가지를 말함이요 譜라고 하는 것은 先代을

기술하고 後代을 잇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譜牒이 안이라면 어떻게 그 祖上을 높이고 그

由來의 始初을 알것시며 宗族이 안이라면 어떻게 그 譜를 編成하야 그 宗과 支의 차례를 밝

힐 것인가. 程夫子(明나라 程顥先生을 말함) 말씀에 宗族을 收合하고 風俗을 敦厚케 하야 근

본을 잊지 안케함은 오직 譜系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하심이 다. 이러함을 두고 말한 것이다. 우

리 宗中은 전에 廣陵世譜가 있었는 데 不幸하게도 壬辰兵火에 燒失되었고 또 李朝光海庚戌

年에 發刊한 姓譜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大譜가 다섯 차례요 派譜가 두 차례다. 이토록 連이

여 끊어지지 않고 보니 漢陰先祖께서 말씀하신 遁村以後로 비록 멀다 하지만 한 나무에 가지

다 本來엔 한 뿌리에서 났다고 하신 遺訓이 더욱 感激스럽다. 大體로 先代에서 이루어진 譜

牒이나 諸般文獻이 모두가 漢字로 編成되어 있어 지금 漢字의 使用이 漸漸 줄어지는 때를

當해서는 漢字를 익히지 못한 後孫으로서는 그 뜻을 理解하기가 어렵고 보니 다만 모셔 놓

고만 있을 뿐 읽지를 못하니 당초에 없어서 읽지 못함은 오히려 말할 수 없거니와 모셔 두고

서도 읽지를 못한다면 한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漢陰先生文稿를 國譯하는 중에 있어서도 漢

字를 理解하기 어려운 感이 더욱 간절하다 이려함을 憂慮하야 이번 派譜을 重刊함에 있어
以前에 序文과 碑文等 漢字을 덧붙쳐 번역을 하는 것은 그 깊이 쌓인 뜻을 쉽게 알기 爲해
서다 族譜를 갖이 하는 우리들이 받아들여 읽으면서 先祖들의 遺志을 이어 받아 眞實로 멀어
져도 追慕하야 잊지를 말고 派系가 나누어져도 疎遠하게 되지 않도록 祖上을 높이고 宗族
을 和睦코자하는 마음이 솟아난다면 路上에 行人처럼 보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고 또 世教
風化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譜編이 完了되었음으로 외람됨을 不顧하고 번역한
것이 서를기는 하나 大意만은 잊지 않하였으니 다시 後日에 補修를 기다리고 若干에 顧末
을 위와 같이 쓰노라

辛酉一九八一年

仲冬

後孫

根馥

삼가 씀

辛酉派譜重刊序

夫人之生也 莫不本源乎祖先而行矣 然世遠而易忘 派分而易疎 幾至路人相視 故譜法出而
尊祖合族之道 成矣 族者同根分枝之謂也 譜者 述先繼後之謂也 非譜則何以尊其祖而 知由
來之始 非族則 何以修其譜而 明本支之序乎 程夫子 有言「收宗族 厚風俗 使不忘本 唯
明譜系之義」此之謂也 吾宗 舊有世譜 不幸壬辰兵火 燒而不傳 自李朝光海庚戌之譜 至于
今 大譜五次 派譜二次也 世守譜法 連綿不絕 於是乎 深感 漢陰先祖譜序中 「遁村以後
雖遠一枝也而 本是同根」之遺訓耳 蓋先代之譜與諸般文獻 悉以漢字編成 當今 漢字文化漸
頽之時 以淺學之後孫 難解其意 唯奉置而不讀 既無而不讀 猶不可言 其有而不讀 尤爲可

嘆也。際此漢陰先生文稿國譯之時，倍切漢字難解之憂矣。是爲懼焉。今番重刊派譜，序文及碑文等漢字，以國文譯之，欲爲易曉其深意也。凡我同譜之人，奉讀而克體先志，苟能追於遠而不忘，及於分而不踈，尊祖睦族之心，油然而生，必免路人之相視也。無疑而亦有關於世教風化者，大矣。譜將告訖，不顧僭越，敢搆國譯，語雖壅拙，不失大意。更俟後日之補修，畧叙顛末如右焉耳。

辛酉一九八一年仲冬

後孫 根馥 謹序

庚戌譜序(譯文)

漢原府院君 李德馨

옛날 내가 어렸을 때 曾大父 居所에서 廣陵世譜를 보니 活字로 印刷되었으나 다만 子와 女壻만 記錄하고 外孫까지는 미치지 아니하여 홀로 그 너무 簡略함을 恨스럽게 여겼더니 長成하여서 古人의 宗法을 詳考해 보고 이 族譜의 깊은 뜻 있음을 알았으니 대개 東臬相公의 指示에서 나온바라 하더라 壬辰兵禍에 國籍도 다 재가 되었거늘 하물며 家譜에 있어서 宗老李士溫氏는 東國 여러 氏族의 世系를 익히 알아 거듭 內外譜를 아주 仔細히 編纂하여 나에게 校印하기를 請하였으나 그러지를 못했었다 어느날 聞韶(義城古號)李使君(守令의 雅稱)士修氏가 姓譜 한卷을 보내 왔으니 穩全히 東臬相公의 舊書를 記述하고 또 蘇氏譜(宋나라 蘇老泉의 族譜)의 仔細함과 簡略함을 본 뒤이니 前日 미처 校印하지 못했던 것과 一見에 意思가 合致되어 있음을 알겠다 참으로 要領을 體得하였음이요 能히 世業이 될만 하도다 間或 한 두군데 틀리고 빠진 곳이 있어 곧 들은바 대로 고치고 因하여 그 顛末을 敘述하여 보냈다 噫라(感慨無量の 表現) 우리 遁村先祖께서는 逆賊辛旽을 排斥하시다가 禍가 미쳐 멀리 避禍하셨으며 叅議先祖께서는 昭悼之變(芳蕃、芳碩의 王子亂)에 獻廟(太宗)에게 叩馬極諫하셨으며 直聲과 偉節이 옛날에도 참으로 比할바 없으니 後孫된者 或 家聲을 더럽힌다면 能히 이 族譜에 對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없을수 있을까 또 遁村以後로 代數는 비록 멀어져도 一枝이다 本是 同根으로 서로 和睦하지 못한者 있다면 이 무슨 心思일까 祖先의 情을 생각하고 族譜를 보면서 油然(盛하게) 이러나는 모양)히 敦睦의 情이 일게 된다면 그

것이 바로 이 族譜에서 느낀바 있음일진저

庚戌譜序

漢原府院君 李德馨

昔余幼時從曾大父所見廣陵世譜印以活字只錄子壻不及外孫私恨其甚畧及長究古人之宗法乃知此譜有深意蓋出東臯相公之指云壬辰兵禍國籍盡灰而況於家譜乎宗老李士溫氏習知吾東諸閥世系重纂內外譜甚備以要余校印而未果一日聞韶李使君士修氏寄示姓譜一本全述東臯相公之舊書且倣蘇氏譜之詳畧嚮之未及校者一見愜意信乎知要而能世業矣間有一二差漏處輒以所聞釐正仍序其顛末而還之噫吾遁村先祖斥忤逆眈逮禍遠避叅議先祖叩馬諫獻廟於昭悼之變直聲偉節古固無比爲後孫者苟忝其家聲則能無愧於此譜乎而遁村以後雖遠而一枝也本是同根不與之相睦者獨何心哉念祖先之情觀譜而油然而發則其亦有所感於此夫

甲辰譜序(譯文)

通訓大夫弘文館校理 承源

族弟判隸院夏源甫가 世譜를 重修하야 校正을 마치고 將次 그 叔父北伯(咸鏡監司)公莅所로 보내어 印刷에 부치고저 할제 나를 請하야 일러 가로되 이 일은 兄의 先大父께서 일지기 經營하가 始作하였던 바이거늘 兄이 어찌 이 世譜에 一言이 없을수 있겠오 하니 내가로되 좋다 그것은 내 本意이거나 어찌 글을 못한다고 辭避하리오 하였다 삼가 按察하건대 舊刊 同姓譜 한卷은 곧 우리 東臯先祖께서 撰定하신 바이나 壬辰에 이르러 兵火에 잃어버린바 되었고 그後 高祖考 贊成公께서 이어 編次하시고 漢陰相公이 序하였는바 生員公以上

四代名諱가 謄傳雜記에서 처음 나왔고 明文의 可據할만한 것이 없는故로 卷末에 記錄하고
 그 各派子孫도 附記하여 本譜와 區別하였으니 至今 行해지고 있는 庚戌譜가 이것이다 거슬
 러 庚戌까지는 거의 百餘年이 되어 世代는 멀어지고 子孫은 繁盛하니 譜牒의 改修가 時期
 로 보아서는 合當하다 하겠다 지난 辛未年에 先王考께서 諸宗의 委重을 받아 各派單目을
 收合하여 添削考證하여 闕漏함이 없었고 두루 旁註를 달고 外孫까지 收錄하였으니 例規는
 紊亂스럽지 않고 詳略도 適當하여 드디어 上中下三卷으로 나누었으나 草本이 定해지자 王
 考께서 下世하시고 그 冊은 族叔父 叅判公에게 돌려져 時機를 보아 印出하려 하였던바 未幾
 에 叅判公께서 또 別世하시니 箱篋속에 넣어둔지 또 몇년이 지났다 얼마전에 北伯公이 叅
 判公의 弟로 邊境을 觀察하게 되매 鳩工辦事(工匠을 모으고 일을 處理함)할만하고 判決君
 은 叅判公의 아들로 明敏精勤하여 實際 校正所任을 担当하게 되었으니 이에 印草兩本(印은
 庚戌譜 草는 重修할 草本)에 依據하여 자못 增刪과 去取가 있었다 別譜子孫을 記錄치 않음
 에 있어서는 스스로 區分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오 四代名諱를 그대로 登載하였음은 마땅히
 慎重을 期해야 하기 때문이다 合譜之說을 排斥함에 있어서 辭意가 明正하고 辨疑之書를 만
 들에 있어서 援據가 詳悉하게 하면서 몇달이 못되어 編纂과 刻板을 마치니 判決君의 힘이
 이토록 많았으며 이는 또한 吾宗의 大幸한 일일 것이다 乎虜(嗚呼와 같음)라 古語에 이르
 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盛하고 源泉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理致의 攄攄한 바이
 로다 우리 李氏는 麗季에 顯達하기 始作하여 本朝에 이르러서는 光廟 成廟代에 極盛하였고

明宗宣祖때에 이르기까지 名公과 碩輔가 蔚然輩出하여 文章과 德業이 歷史에 빛나고 子孫은 千億이오 科甲이 連이어오니 이는 祖先의 쌓이고 쌓인 厚蔭所致가 아닐수 없은즉 이 族譜를 보는者 祖先의 餘休를 이어서 闡揚하고 家聲을 떨추지 않을것을 생각치 않을수 있을가 이는 나와 宗人이 마땅히 함께 힘쓸 일ियो 나로서는 따로히 마음에 서글픈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祖父님을 모시고 이 일에 書札을 代筆하여 드리는 일이 아직도 어제일 처럼 歷歷하건만 감박할 사이에 이미 三紀(一紀는 十二年)가 지났으니 지난일을 생각하고 슬퍼울 먹이지 않을수 없어 이에 몇마디 敘述하여 私感 또한 아울러 적는 바이다

甲辰譜序

通訓大夫弘文館校理 承源

族弟判隸院夏源甫重修世譜校勘訖將送于其叔父北伯公莅所俾付剞劂乃要余而謂之曰是役也兄之先大父蓋嘗經始而就緒者兄烏得無一言於斯乎曰諾是吾志也安敢以不文辭謹按舊刊同姓譜一冊即吾東 皐先祖之所撰定也至壬辰軼於兵燹其後高祖考贊成公續有編次漢陰相國序之而生員公以上四代名諱始出於諺傳雜記未有明文之可據故錄在卷端仍附其各派子孫以別本譜今行庚戌譜是也溯庚戌殆百有餘年世代寢遠子姓漸繁譜牒修改以時則可往在辛未先王考因諸宗所委重收各派單目撫採攷証靡有闕漏遍加旁註添錄外孫程例不紊詳略得意遂分爲上中下三卷草本既定王考下世其書歸于族叔父叅判公且待時而鋟行未幾叅判公又捐館出閑箱篋亦有年矣迺者北伯公以叅判公之弟出按藩臬既可以鳩工辦事而判決君以叅判公之胤又明敏精勤實幹校讎於是是據印草兩本頗有增刪去取至若別譜子孫之不錄以其自貳也四代名諱之仍載所當存謹也斥合譜之說而辭理明正作辨疑之書而援據審悉不數月而編勒

卒完判決君之力於是爲多而其亦吾宗之大幸也歟於序語云根深則枝茂源遠則流長此理之常耳惟我李氏始顯於麗季逮本朝極盛於光廟成廟之世施而及乎明宣之際名公碩輔蔚然輩出文章德業焜耀簡策至今子孫千億科甲連倫此莫非祖先積累之厚有以致之也然則觀是譜者可不思所以紹闡餘休母墜其家聲耶此則吾與諸宗人之所當共勉而抑余別有所憾於心者記余昔侍王考替執筆札於斯役尚了了如昨曰事而轉頭之頃已過三紀矣不勝追撫愴咽茲敘數語並以志私感云爾

丙辰譜序(譯文)

通訓大夫行議政府檢詳文臣兼宣傳官

基讓

族譜란 氏族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譜하는 法은 祭祀에서 비롯하나니 父에 祭지내고 祖에 祭지내며 始祖에 祭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父로 이르고 祖로 이어서 始祖까지 이은 宗法이 서는 것이오 宗法이 서야 父祖로부터 始祖까지의 族이 合해지는 것이다 春秋(中國周末戰國時代直前)以後에 祭禮가 없어지고 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氏族이 다시는 合쳐지지 못하였다 朱子께서 걱정하자 大宗法이 세워지면 小宗法은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近世의 四代를 祭祀지내는 法을 세움이 이것이다 그러나 四代以上은 오히려 統屬이 없다가 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始祖以下の 宗族이 비로소 合치게 되었는 故로 오늘날의 譜法은 옛날의 祭義라 말 할수 있다 무릇 始祖에 祭지냄도 이미 至極한 精誠이건만 聖人이 또 禘(채)를 지냈으니 禘란 것은 始祖의 所自出(즉 아버지)을 祭祀지내는 것이다 대체로 禮에 는 始祖를 重히 여기나 始祖란 것은 基礎를 세운 祖上을 指稱함이오 生民의 始祖를 말함이

아니나 國君으로 처음 封함을 받는 것이나 卿大夫로서 처음 爵을 받음과 같은 것이다 或
列國에서 移居하여 後世에까지 功德이 있는者 및 他族과 有別한者를 다 始祖 或은 別子라
하여 사당에 모시니 이는 特別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는즉 祭祀지낼 것이고 祭祀를 지낸다면 祭祀받는者 以下の 氏族은 舍치지게 되는 故로
周나라는 이미 稷으로 始祖를 삼고 殷나라는 契로 始祖를 삼았으되 또 반드시 嚳(고)에 禘
지냈으며 夏나라는 이미 顓頊(전욱)으로 始祖를 삼았으나 반드시 黃帝에 禘지냈으니
그 뜻이 甚히 精하고 넓다 우리 李氏는 萬曆庚戌譜에서 의미 遁村公으로 始祖를 삼
았으니 遁村으로부터 처음으로 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生員公을 卷首에
特書하고 生員公 以上 四代名諱와 生員公의 여러 他子들과 四代後裔들을 卷末에 記錄
하야 別譜로 하였으니 遁村公 또한 所自出이 있으므로 이르는 바로 古人의 禘祫(협)
하는 뜻이며 尊祖와 合族에 可謂 들 다 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議論이 分裂되어 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乙巳譜를 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別譜
로써 疏遠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別이란 것은 다만 遁村의 別子임을 밝히고저 하였을 따름
인故로 遁村의 親兄弟들까지도 오히려 特別히 여겼던 바이니 어찌 疏遠해질것 까지야 있었
으리오만 이 점을 特히 살피지 못함인즉 어찌 哀惜하지 않으리오 이제 承旨 尙度氏가 다시
重刊을 圖謀할제 義例의 嚴함이나 引系의 仔細함은 庚甲譜規를 參用하고 間或 自己意見을
넣어 일은 簡便하면서도 記錄은 周備하였으니 그 用心의 과로움이니 取捨의 精함이 要는

廣州李氏左議政公派譜

尊祖合族에 歸結되매 前人들의 譜規새운 本義를 알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可敬할 일이다 지
 난날 우리 族譜는 모두 세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尚度氏 先祖 東臯公께서 草創하야 基
 讓先祖 漢陰公이 보고 傳하였고 그 다음은 庚戌譜로서 尚度氏六世祖 寺正公께서 修譜하야
 漢陰公이 또 序하였으니 이제 尚度氏의 이번 일에 基讓(즉 本人)만이 可히 그 만들수 잇을
 까 그래서 삼가 序하노라

丙辰譜序

通訓大夫行議政府檢詳文臣兼宣傳官

基讓

譜所以合族也然合族之法源於祭祭自祭禰祭祖至於祭始祖而繼禰繼祖繼始祖之宗立焉宗立而自祖禰
 至始祖之族合焉春秋以後祭禮缺而宗法墮壞族不復合矣朱子憂之至以爲大宗法既立不得須立小宗法
 近世之立主祭四代蓋是也然四代之外猶無統屬及譜法出而始祖以下之族始得以合故曰今之譜法古之
 祭義也夫祭始祖已至矣而聖人又禘焉禘者祭始祖之所自出也夫禮重始祖然始祖者特謂始基之祖非謂
 生民之始也如國君始受封卿大夫始受爵或自列國始移居凡有功德於後者及別於他族者皆禰始祖或別
 子是特別之耳然亦必有所自出既有矣斯祭之既祭矣所祭者以下之族又可得以合之故周既祖稷殷既祖
 契而又必禘嚳夏既祖顓頊而又必禘黃帝其義甚精且廣矣我李自萬曆庚戌譜已以 遁村公爲始祖蓋以
 始顯自 遁村也既又以其考 生員公特書卷首復取 生員公以上四代名諱及 生員公他諸子及四代
 後裔錄之卷末爲別譜蓋以 遁村公亦有所自出也此正古人禘禘之義而尊祖合族可謂兩得其宜至 景
 廟甲辰諸議忽岐四代後裔三家者遂分爲乙巳譜是固以別譜爲疏之也然別之者只欲明 遁村之爲別子
 而已故 遁村之親兄弟猶且別之何有於疏之乎而特未之察寧不惜哉今承旨尚度氏又謀重刊義例之嚴

引系之詳參用庚甲間出己意工簡而記備蓋其用心之苦取舍之精要歸於尊祖合族不失前人立譜之義儘可敬也向吾譜凡三成其始也尚度氏先祖東臯公歿之而基讓之先祖漢陰公及見而傳之其次爲庚譜而尚度氏六世祖寺正公修之漢陰公又序之今尚度氏之有是役基讓獨可以己乎遂謹序之

癸酉譜(譯文)

輔國崇祿大夫中樞府事兼吏曹判書 宜翼

譜法이 생긴지는 오래되었다 우리宗中에도 예전에 世譜가 있었으나 不幸이도 壬辰兵火에 燒失되여 傳하지 못하였고 庚戌(一六一〇)年에 文景公에 五代孫이신 寺正公께서 姓譜를 纂하시니 우리 先祖文翼公께서 序文을 지으셨다 그後 甲丙兩譜가 發刊되었으나 歲月이 오래되고 代數가 멀어져서 敦睦의 誼가 漸漸疎遠하게 되니 恒常念慮되는 바이다 지나간 己酉年에 諸宗들이 譜牒을 重刊하라는 要請이 있었으나 當時 내가 東萊府使에 任命되여 一年이 지나도록 編纂을 못하고 있는中 一部宗員이 譜規에 違背되는 僞譜(不正한 族譜)를 發刊하니 우리派와 漆谷 寶城兩派의 推單이 들지안은 族譜를 發行하였으니 슬픈일이 안일수 없다 今正譜를 修纂하여야 할것이나 此日彼日數十年이 지났다 庚午年봄에 京鄉諸族이 모여서 譜事에 對하여 나에게 물으니 내가 말하기를 族譜를 하기로 말하면 宜當譜規를 遵守하여야 할것이라는 말을한즉 諸宗이 贊同해야 節目을 前譜規例에 依하여 癸酉에 이르러 發刊하게 되었다 내가 외람됨을 不顧하고 顛末을 記錄하여 後裔에게 告하노라 우리 廣李는 東邦勝國時부터 名聲이 높았고 我朝에 와서 文武兼全하신분이 많이나서서 德業이 빛나시니 當世에

廣州李氏左議政公派譜

需要가 되고 後裔에게 榮光이 되니 實은 先祖께서 仁과 德을 쌓으셔서 後孫에게 복이 되게 하시였다 族譜을 짓이하는 우리들은 先祖에 뜻을 본바더 살어감에 욕됨이 없으면 李氏에 業이 다시 昌盛하야 天地로 더부어 無窮할이라 諸宗은 생각할진저

癸酉譜序

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吏曹判書 宜翼 謹序

族之有譜古也 吾宗舊有世譜 壬辰兵燹灰而不傳 粵昔庚戌文景公五代孫寺正公重纂姓譜 我先祖 文翼公序之 嗣其後甲丙兩譜出焉 歲久代曠 親者漸疎 疎者益遠 無以修敦睦之誼 乃吾 遁村後裔者常庸慨然 往在己酉冬 諸宗屬余以重刊之役 未幾余以萊州命周歲滯南 未克親自校讎 族中數人不有譜規 潛刊偽譜 惟吾派暨漆寶二派推單不入 噫 偽譜既出 即修正譜 以其辦偽直戾契致耳 因循而莫之遂者 今過數十載矣 迺於庚午春 京鄉諸族齊會 以譜事諱于余 余曰 不譜則己爲譜 宜清僉曰 諒矣 遂定節目 一依前譜規例 翌年以活字印之 工既訖 余不揆僭越 仍書顛末 以諗于後裔 惟我李得姓於東方 在勝國時 已有聞人入我 朝以來名碩輩出 德業炳耀 需當世光 後乘者實由我祖先之積德累仁 委祉于後昆也 凡我同譜之人 克體先志 無忝其生 則李氏業其將復昌與 天壤同敞 諸宗其念之哉

己未譜序(譯文)

喜義大夫宮內府特進官 承載

옛날 내가 젊었을때 先考께서 癸酉譜에 序하시실제 내 손수 筆硯間에서 助役하던 일이 또
 려 또 려 어제일 같건만 不肖가 無狀(形便없음)으로 또 이 일을 當하게 되니 옛날을 더듬는
 私情에서 을먹임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눈 감박할 사이에 이미 四十餘年이 지난 것이다 世

代는變遷하고 子孫은 繁昌하니 前譜를 改修함에 꼭 알맞는 時期이다 門內 叅判容觀氏가 여러 해를 經營하면서 心力을 다하여 일이 다 맺어지려 할제 病昏으로써 不佞(영리하지 못함) 즉 自己를 나추워 말할때(숨)에게 말기니 두번 星霜이 바뀌어 (二年이 지남) 庚戌 甲辰 丙辰 癸酉의 事業이 다시 새로워지니 甚히 大幸함이로다 그러나 이어져 저절로 되는 일이 리오 觀察秉承氏가 淹博한 學識으로 精詳한 校正을 加하기에 心力을 다 하였으며 또 아끼고 節約하는 습씨로 財務를 보기도 하고 總務도 맡아 하면서 能히 所任을 다하여 空中樓閣을 이르기듯한 것은 秘書丞鼎來氏의 힘이 더욱 많았으니 다 記錄해 들만하다 嗚呼라 이번 族譜는 疏遠한 宗族과도 合同한 것은 親을 주로 함이오 古規와 같지 않음은 時宜에 따르기 때문이었다 무릇 우리 生員公 및 遁村先生으로부터 나온者(子孫된者) 힘써 尊祖 保宗의 意義를 생각할 일이오 그때 그때 親親함이 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즉 이것 또한 알지 못하면 아니 될 것이다 이에서 序文으로 書하노라

己未譜序

嘉義大夫宮內府特進官 承載

昔予弱冠先考序癸酉譜手執使役於筆硯之間了了如昨而不肖無狀又當是役撫古之私不覺嗚悵而轉眄之頃已逾四十餘星霜矣世代變遷子孫繁衍改修前譜固其時也門內叅判容觀氏經營屢載積費心力事將就緒以病昏託于不佞兩易星霜庚甲丙癸之業復新甚大幸然此豈徒然觀察秉承氏以淹博之學加精詳之校竭殫心思且其冷手殘枰主財主務能舉其職如起空樓秘書丞鼎來氏之力爲尤多皆可書也已嗚呼是譜也與疎宗合同者親也與古規不同者時也凡爲我 生員公暨 遁村先生之所自出者勉思所以尊祖保宗

之義隨其時親其親不在譜而在乎人焉此又不可不知也於是乎書

己亥派譜序(譯文)

昌億

事物엔 本末과 始終이 있다 그러므로 根本이 混亂에 빠지고서는 그 끝이 다스려질 수가 없다 廣陵의 李氏는 望族의 隊列에 參與해서 本孫과 支孫들이 앞을 다투어 朝廷에 나아가 冠冕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譜冊이 具備되어 있으므로 해서 馬鞭아래 읊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 昭穆이 明白하므로 楚越같이 相對하는 걸 免한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始祖의 蔭德과 餘慶의 고마움을 새삼 깨닫겠다

나라의 文籍이 재더미가 되고 사싯집일은 돌볼 겨를도 없었던 壬辰亂中에서도 先祖 漢陰相公께서는 밝으신 省察로 東臯相公의 뜻을 이어받아 그 精微한 內容을 窮究하시어 後孫들에게 垂訓을 하셨으니 그 如天如海한 德澤을 죽어도 잊지 못하겠다 그로부터 子孫들도 譜法을 잘 지켜 繼繼承承하여 己未譜를 이루는데 까지 이르렀다

三十年을 一代로하여 修譜하는 것은 온 世上이다 아는 바인데 己未年이 지나고 벌써 四十餘年이 넘었다 그동안에는 六、二五의 事變과 一、四後退의 混亂이 있어 諸族들은 모두 溝壑속에서 헤매느라 生命마저도 保全하기가 어려웠던 터라 家乘을 紛失한 사람이 非一非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 어지러워진 譜事를 만드시다 스려야 할 때라고 본다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此年彼年하고 歲月만 보내다가 年老한 분들이 모두 도라가

시고 보면 年淺한 後生들 가지고는 事蹟을 考察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敦睦의 親誼도 지키
 지를 못하여 심지어 路人視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先代의 事業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現存한 사람들의 不敏한 所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다
 大同譜를 經營하려고 해도 南北이 分裂된 立場에서 끝내 合力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文景公派에서 먼저 派譜를 始作하여 지난 가을에 벌써 畢役을 했으니 우리 派
 에서도 손을 놓고 傍觀만 할수 있겠는가? 먼저 宗孫인 文煥의 뜻을 받들어 京鄉宗族들과
 鳩首協議한 끝에 修譜事에 對한 合意를 보았다 役事を 마치고서 淺見薄識을 가지고는 그
 顛末을 序하기란 어려우나 뒤 사람들이 다시 大譜를 이루기를 바라고 또 빌면서 이렇게 派
 譜를 修編한다

己亥派譜序

昌億 謹序

物有本末事有終始本始亂而末治者鮮矣廣陵之李叅於望族本支進號冠冕嬋媯故有其譜編能避馬鞭相
 揖明其昭穆可免楚越相視乃知 始祖之陰德餘慶而國籍入灰私家難顧之時壬亂 先祖漢陰相公之明
 察承 東臯相公之指示究其精微之蘊垂訓於後裔如天如海之澤死而不忘伊後子孫能守譜法繼繼繩繩
 達于己未之譜也三十年爲一代修舉世共知而已經己未四十有餘載之中六二五之事變與一四後退之亂
 諸族轉於溝壑生命難保家乘失者非一非再則於今之勢治亂左右之際也無爲而度了此年彼歲年老者逝
 之則年淺後生難攷事蹟未守敦睦之誼甚至於路上之歎而先代事業壞亂乃已矣非現存者之不敏而何也
 懼且悚焉故欲營大譜則以南北分裂終難合力不啻文景公派先以派譜昨秋畢役吾派焉可袖手傍觀先因

宗孫文煥之意與京鄉宗族鳩首協議以修譜合意而功既告訖雖以淺見薄識難序其顛末然後有其人更成大譜望且祝而姑以派修編云

己亥派譜序(譯文)

濟淳

옛날 우리 祖上인 漢陰相公께서는 직접 東臯相公의 뜻을 받드셨다 그 祖上의 行蹟을 承繼하는 正성과 子孫을 爲하여 남기신 計謀가 몹시도 丁寧하고 淳復했다 우리 後孫된 자마 땅히 正성을 다하여 가슴에 새겨 항상 생각을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世世로 譜牒을 손질하여 己未년까지 이르도록 끊어지지 않았건만 아! 지난 庚寅年(一九五〇)을 맞아 北쪽의 자물쇠가 한 차례 깨어지고나니 人民들은 갈광질광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게 된 지라 어느 겨를에 譜牒을 들볼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지금의 世態를 돌아보건대 南과 北이 對峙해 있어 人心이 더욱 사나우니 아마도 天意가 다시 언제 安定될 것인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禍가 朝夕間에 일어날 것만 같아 몹시 心亂하고 보니 이 때문에 더욱 두렵다 大譜는 너무나도 龐大하여 猝地에 이를 수는 없고 派譜라면 짧은 期間에 실마리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左議政公派만이라도 別道로 簡便하게 譜乘을 만들어서 보첩을 같이한 同族들에게 閱覽케 한다면 祖先들의 빛나는 卍字와 墓所에 對한 追慕之感이 마음한 구석에 일어나서 孝悌之心이 油然而 솟아날 것이요 子孫들의 昭穆과 派系의 順序가 明白하게 眼中에 들어와서 敦睦하는 氣風이 奮然히 일어날 것이니 반드시 馬鞭아래 揖하는

파위와路人視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음은 것이다

漢陰先祖의 訓子帖은 代代로 子孫들에게만 傳해야 할 寶物뿐이 아니다 屢百年을 傳守하기
도 어려운 일이라서 다시 現代의 寫眞術로 印出을 해서 꼭꼭 每卷首마다 添付해서 여러 子
孫들에게 均一하게 閱覽케 하여 追慕의 正성을 북돋게 했으니 모두가 힘쓰기 바랍니다 譜牒
이 이루어짐에 딸아 간략하게 위와 같이 叙述한다

己亥派譜序

濟淳 謹序

昔我祖漢陰相公親受 東臯相公音旨其繩武之念貽謨之計丁寧淳復在吾後裔當惓惓服膺釋念常在茲
者也自是以來世世修譜暨于己未而不絕噫粵在庚寅北鑰一關人民逆散救命不得矣暇顧譜牒哉况觀今
之世南北對峙人心危懼蓋不知天意更安定之又將招起朝夕之間而亂靡極耶用是瞿然大譜蔓延不可猝
成而派譜則短期可以就緒故以左議政公派別爲譜乘以趨簡便使同吾譜者一覽則祖先之華啣與墳墓恍
惕起於心頭孝悌之心油然而生子孫之昭穆與派系昭明在於目中敦睦之風奮然而興必免馬鞭之揖路人
之視矣

漢陰先祖訓子帖非徒爲傳家之寶也屢百年傳守亦一稀事更以今世寫眞術多爲印出每卷首必爲添付使
諸孫均覽以寓追慕之誠宜各勉勗哉譜將成略叙如右焉

